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 중심

송 주 현*

본 연구는 영국, 캐나다 퀘벡 주의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 분석하고, 두 사례의 특징과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설계된다. 둘째,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 시 역량의 음악 교과적 적용은 두 가지 방향(총론 차원의 일반적 역량을 음악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설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 절차상의 원칙과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는 음악 교육과정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 주제어: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음악과 교육과정, 일반적 역량, 음악교과 특수 역량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II.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 교육과정 총론의 개요

1. 영국
2. 캐나다 퀘벡 주
3. 총론의 개정 방향에 대한 종합적 논의

III.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1.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2. 교육과정 목표
3. 교육과정 내용
4. 평가

IV.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 음악과 교육과정 특징

1. 공통점
2. 차이점
3. 정리

V. 논의 및 시사점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서울 서운중학교 교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들어서 지식과 창의력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기반사회로 변모해가는 만큼 종래의 지식 전수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적절하게 적응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교육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사회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하고(윤정일 외, 2007, p. 223),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의사소통능력, 분석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력, 인간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세계적인 안목과 적응력 등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돈희, 1999; 윤정일, 2007, p. 224에서 재인용). 이러한 능력들이 기존에 관심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면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시각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대표적 흐름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역량을 중심축으로 삼는 것으로 역량의 개념적 정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본래 역량은 “직업 교육이나 훈련 분야, 혹은 성인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소경희, 2007, p. 2)으로 교육학, 심리학, 행정학, 정치학, 경영학 및 기업 조직 차원 등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반적 성격의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 개념이 규명되면서부터 역량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 프

로젝트에서 규명된 핵심 역량의 하위 요소는 “도구의 상호작용적 사용,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OECD, 2005, p. 5) 이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개인에게 있어 성공적인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를 지니며(OECD, 2002, p. 10), 지식·기술·태도·가치를 총 망라하는 것으로 규정된다(OECD, 2005, p. 4).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을 직업 분야가 아닌 인간 전체의 삶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역량의 문제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질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시켜 주었으며, 이에 대한 학교교육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소경희, 2007, p. 2).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핵심 역량 개념은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역량으로 이해되었고(이선영, 2011, p. 26), 교육 영역 이외에서 사용되던 역량 개념을 교육에 적용할 때의 개념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에 따라 역량은 학교 교육 안으로 흡수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핵심 역량은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보편적 능력이면서도 인지적·정의적·심동적·사회적 차원의 총체적 개념이기에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을 통해 육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개혁 관련 연구들이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 개념은 최근 여러 나라의 교육개혁의 방향 설정에 있어 주요한 개념으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대략 1990년대 초반부터 생겨났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었다(이광우 외, 2009, p. 55). 이러한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는 영국, 독일, 대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다양한 나라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광우 외, 2009). 각 국가별로 역량의 용어와 개념 정의, 설계 방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역량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음악교육도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데 있어 예외가 아니기에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도 예전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음악교과와 경우 이전의 지식이나 기능 중심의 학교 음악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차원

에서 역량을 중심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의 사회적 변화상에 따른 학교 음악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만큼 외국의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경향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적 접근 경향을 보여주는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고 두 사례의 특징과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의 교육과정 총론과 음악과 교육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국가의 교육과정을 선정한 근거로는 첫째, 선진국으로서 2000년대 이후 교육과정을 개정한 국가라는 점, 둘째, 연구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영어권 국가라는 점, 셋째, 선행 연구에서 교육과정 총론이 역량 중심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혀진 국가라는 점, 넷째,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기존의 음악적 지식이나 기능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적 접근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국가의 교육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육과정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두 사례의 교육과정 구성이 매우 달라 공통된 분석준거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구성을 참고하여 교육과정 문서 체제, 교육과정 목표, 교육과정 내용, 평가 등의 준거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특징을 탐색하였다.

<표 1> 교육과정 총론 및 음악과 교육과정 검토 자료 개관

국가	분석 대상 문서 및 인터넷 자료	학교급	개정 시기	개정 주관 기관
영국	교육과정 총론	중등	2007년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
	음악과 교육과정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국가	분석 대상 문서 및 인터넷 자료	학교급	개정 시기	개정 주관 기관
캐나다 퀘벡주	교육과정 총론 Québec education program - Preschool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education	유·초등	2001년	Ministère de l'Éducation
	Québec education program - Secondary school education, cycle one	중등	2004년	Ministère de l'Éducation
	음악과 교육과정 Québec education program - Secondary school education, cycle one	중등	2004년	Ministère de l'Éducation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의 교육과정 문서상에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하기에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의 총체적 특징을 드러낼 수 없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두 사례를 분석준거에 맞춰 분석하였기에 분석준거에 한정된 특징만을 드러내는 한계점을 갖는다.

II.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 교육과정 총론의 개요

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기에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론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의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방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영국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영국의 의무교육은 5세부터 16세까지 이루어지며, 초등(5-

11세)과 중등(11-16세)의 2개의 phase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시 4개의 key stage로 나뉘지는데, 초등은 key stage 1(1-2학년)과 key stage 2(3-6학년), 중등은 key stage 3(7-9학년)과 key stage 4(10-11학년)로 나뉜다(<http://www.inca.org.uk/england-system-mainstream.html>).

영국의 key stage 1과 2 교육과정은 당초 2008년 개정되어 2011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소경희, 2011, p. 93),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1년 1월 20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선언하여(Department for Education, 2011b; 소경희, 2011, p. 103에서 재인용) 현재 재개정중이다. 한편, key stage 3과 4 교육과정은 2007년에 개정되어 2008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http://curriculum.qcda.gov.uk/key-stages-3-and-4/index.aspx>).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등 교육과정인 key stage 3과 4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key stage 3과 4 교육과정의 문서체제는 ‘목적·가치·목표’, ‘일반적 교수 요건’, ‘교과목’, ‘기술’,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가치·목표’ 부분에서는 영국의 교육과정이 학교가 기준을 세우고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의 삶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의 목적으로는 “성공적 학습자, 자신감 있는 개인, 책임감 있는 시민”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문해력, 수리력, ICT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핵심적 지식, 기술, 이해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 총론에서 크게 주목할 부분은 바로 ‘기술(skills)’이라는 독립된 범주이다. 영국은 이미 종래의 1999년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학생들이 앞으로의 학습, 직업, 삶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key skills)¹⁾’과 ‘사고 기술(thinking skills)²⁾’을 제시해왔고(소경희, 2001, p. 140), 이것들이 2007년 개정 중등 교육과정에서 ‘기술’로 재정비되었다. 교육과정 분야에서 역량이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 OECD의

1) 의사소통, 수의 응용, 정보기술, 다른 사람과의 협동, 자신의 학습 및 수행 개선, 문제 해결

2) 정보 처리 기술, 이성적 사고 기술, 탐구 기술, 창조적 사고 기술, 평가 기술

DeSeCo 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기술은 다른 나라들에서 강조하는 역량과 상당히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영국의 교육과정이 역량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광우 외, 2009, p. 55).

‘기술’은 크게 ‘기능적 기술(functional skills)’과 ‘개인, 학습, 사고 기술(PLTS; Personal, Learning and Thinking Skills)’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능적 기술’은 개인이 공동체와 직업세계에서 자신감 있고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다양한 맥락에 기술을 적용하거나 실제적 목적에 기술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종래의 교육과정에서 ‘문해력, 수리력, ICT 능력’ 등의 ‘핵심 기술’을 포괄적으로 재규정한 것이다(이선영, 2011, p. 49). 영어, 수학, ICT 과목에서 ‘기능적 기술’을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 2007; 이선영, 2011, p. 49에서 재인용)하긴 하지만, 다른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기회’ 부분에서도 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핵심 과정’ 부분에서도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 학습, 사고 기술(PLTS)’은 학습과 삶에 있어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독립적 탐구자’, ‘창조적 사고자’, ‘반성적 학습자’, ‘협력자’, ‘자기 관리자’, ‘효과적 참여자’ 등의 6가지 기술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이 6가지 그룹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은 독립적 학습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학습 맥락에서든지 이러한 6가지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http://curriculum.qcda.gov.uk/key-stages-3-and-4/index.aspx>).

2. 캐나다 퀘벡 주

캐나다 연방 정부의 13개 주의 하나인 퀘벡 주는 독자적 교육 체제를 갖고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유치원부터 칼리지(college: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의 2년)까지 12년간이고, 그 중 초등교육은 6년, 중등교육

은 5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흥미로운 것은 학년이 아니라 주기(cycle)를 단위로 교육과정이 구성된다는 점으로, 초등은 2년씩 3개의 주기(cycle 1, 2, 3)로, 중등은 처음 2년간은 주기 1, 그 후 3년간은 주기 2로 나뉘진다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11; 홍원표, 이근호, 2010, pp. 89-90).

퀘백 주는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유지해 온 유·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을 각각 2001년과 2004년에 개정하였다. '퀘백 교육 프로그램(Quebec Education Program)'이라는 명칭의 유·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의 문서체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도입', '범교육과정적 역량', '광범위한 학습 영역', '교과'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및 방향, 교육과정의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퀘백 주는 성공적 교육이 학생들이 그들 주변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위를 이끌어가기 위해 그들의 학습을 활용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종래의 지식 전수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역량 개념을 도입하고 공식적으로 '역량-기반 접근(competency-based approach)'을 취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유·초등과 중등 교육과정 문서에서 밝히는 '역량(competency)'은 "여러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에 기반하는 일련의 행위"(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p. 4)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9)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은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맥락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기술(skills)을 뛰어넘는 개념이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p. 4).

교육과정의 목적으로는 "세계관의 형성, 정체성의 형성,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6), '광범위한 학습영역', '범교육과정적 역량', '교과 영역' 등의 상보적인 세 가지 교육과정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pp. 6-8; 2004, p. 15).

<표 2> 캐나다 퀘벡 주 교육과정 구성 요소와 각 하위 요소

광범위한 학습 영역	미디어 문해력, 개인적 직업 계획, 건강과 웰빙, 환경적 인식 및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시민성과 공동체 삶	
범교육과정적 역량	지적역량	정보의 사용, 문제해결, 창의력의 활용, 비판적 판단의 실행
	의사소통 관련 역량	적절한 의사소통
	개인적·사회적 역량	타인과의 협력, 자신의 잠재력 성취
	방법적 역량	효과적 작업 방법 선택, ICT의 활용
교과 영역	언어(영어, 불어), 예술교육(드라마, 시각예술, 음악, 춤), 수학·과학·기술(수학, 과학과 기술), 사회과학(지리, 역사와 시민성 교육), 개인적 발달(체육교육과 건강, 도덕교육, 종교교육)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광범위한 학습 영역’은 간학문적 영역으로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의 측면, 특히 젊은이들에게 관심대상이 되는 쟁점들을 다룬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pp. 6-7; 2004, p. 21).

‘범교육과정적 역량’은 교과 영역을 뛰어넘어 일반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상호작용하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교과’와 ‘광범위한 학습 영역’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33) 다양한 ‘교과 영역’과 ‘광범위한 학습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학습의 통합을 토대로 하고 있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p. 6; 2004, p. 15).

‘교과영역’은 종래의 분과적 교과들을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서 5개 교과군으로 제시하였다. 퀘벡 주는 교과가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져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과군은 교과들 간의 학습 내용과 역량 간의 잠재적 연계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각 교과는 다른 교과와의 유사성 또는 보완적 관계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57).

3. 총론의 개정 방향에 대한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국과 캐나다 퀘백 주 교육과정 총론 모두 기존의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계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두 개정 배경에 있어서 급변하는 사회상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데 커다란 목적을 두고 이러한 개정 배경 및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종래의 교과 지식 체계 중심으로 설계되던 교육과정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역량 관련 범주를 독립시켜 그것을 교육과정 설계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역량이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서 교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되어 중요한 교육과정 구성 요소로서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종래의 지식 전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뛰어 넘어 미래 사회 학생들의 성공적 삶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 초점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 교육 내용인 역량이 독립된 범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가 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 교육활동이 가능하지 않기에 교과 또는 범교과적 주제들과 연계되어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캐나다 퀘백 주의 경우에는 세 가지 교육과정 구성 요소가 역량 개발을 위해 상호 관련성을 갖고 운영되며, 교육과정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과도 그러한 맥락에서 역량 및 다른 교과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고 제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음악과 교육과정도 역량 관점에서 새롭게 구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계성은 이후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Ⅲ. 영국과 캐나다 퀘백 주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이번 장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퀘백 주의 교육과정 총론에서 드러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가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교육

과정 문서상에 드러난 구성과 내용을 분석준거에 맞춰 비교 분석해보겠다.

영국의 경우에는 음악교과가 key stage 1부터 3까지 학습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론과 마찬가지로 초등 key stage 1과 2 교육과정은 2011년 현재 개정중이고, 초기 중등인 key stage 3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되었기에 2007년 개정 key stage 3의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검토하겠다.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에는 유·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1년에,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4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두 교육과정의 큰 틀은 유사하지만 중등 교육과정이 시기적으로 나중에 개정된 만큼 내용이 더욱 정비되고 상세하기에 본고에서는 2004년 개정된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1.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영국의 2007년 개정 key stage 3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자세한 설명 대신 핵심적인 것만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여 문서 체제가 비교적 간략하다. 이에 비해 캐나다 퀘벡 주의 2004년 개정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은 영국에 비해 설명이 자세하고 문서 체제도 복잡하다. 다음은 두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를 비교한 표이다.

<표 3>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비교

영국	캐나다 퀘벡 주
☐ 교육과정 목적 ☐ 음악의 중요성 ☐ 핵심 개념 •실제의 통합 •문화적 이해 •비평적 이해 •창의성 •의사소통 ☐ 핵심 과정 •연주, 작곡, 감상 •검토와 평가 ☐ 범위와 내용 ☐ 교육과정 기회 ☐ 성취목표	☐ 도입 ☐ 연계: 퀘벡 주 교육과정의 음악과 다른 구성 요소 간의 관계 ☐ 교수학습 맥락 ☐ 역량 1 - 음악 작품 창작하기 •역량의 초점 •역량의 핵심 특징 •평가준거 •주기 말에 기대되는 결과 ☐ 역량 2 - 음악 작품 연주하기 (* 하위 구성은 역량 1과 동일) ☐ 역량 3 - 음악 작품 감상하기 (* 하위 구성은 역량 1과 동일) ☐ 프로그램 내용

출처: QCA, 2007;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목적’과 ‘음악의 중요성’ 부분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목표 및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핵심 개념’, ‘핵심 과정’, ‘범위와 내용’, ‘교육과정 기회’ 등이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되며, 마지막 ‘성취 목표’가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음악교과와 내용 지식은 따로 제시하지 않고 ‘핵심 과정’, ‘범위와 내용’ 등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진술된다.

캐나다 퀘벡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복잡하지만 크게 보면 ‘도입’ 부분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목표 및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전체가 교육과정의 내용 및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내용 및 평가는 다른 교육과정 구성요소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연계’ 부분, 교수학습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을 담은 ‘교수학습 맥락’ 부분 등이 우선 제시되고, 이후에 본격적 내용으로서 3가지 ‘역량’을 독립된 범주로 제시한다.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이기에 평가는 독립적 범주로 제시되지 않고 각 ‘역량’의 하위 구성요소인 ‘평가준거’와 ‘주기 말에 기대되는 결과’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음악교과와 내용 지식을 요약해 놓은 표인 ‘프로그램 내용’ 부분은 독립적 범주로서 맨 뒤에 제시된다.

2. 교육과정 목표

영국은 ‘교육과정 목적’ 부분에서, 캐나다 퀘벡 주는 ‘도입’ 부분에서 교육과정 목표를 제시한다. 영국의 경우 음악 교육에 국한된 목적이 아니라 총론의 일반적 목적으로 제시된 것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는 3가지 ‘역량(competency)’의 발달을 제시한다. 이 3가지 ‘역량’은 상호 작용적이면서도 교과의 특별한 본질에 의하는 것(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403)으로, 총론의 일반적 역량과 달리 음악교과의 특수한 역량에 해당된다. 이러한 음악교과의 특수한 역량은 총론의 일반적 역량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후부터는 퀘벡 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3가지 ‘역량’ 모두를 음악교과 특수 역량이라고 총칭한다. 총론의 일반적 역량은 교과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역량의 의미를

지니지만, 음악교과 특수 역량은 음악교과 본질에 의한 음악교과 내부적인 역량의 의미를 지닌다. 다음은 두 사례의 교육과정 목표를 비교한 표이다.

<표 4>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 비교

영국	캐나다 퀘벡 주
• 성공적 학습자 • 자신감 있는 개인 • 책임감 있는 시민	• 역량의 발달 - 역량 1 - 음악 작품 창작하기 - 역량 2 - 음악 작품 연주하기 - 역량 3 - 음악 작품 감상하기

출처: QCA, 2007, p. 179;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403

3. 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내용은 두 사례가 음악교과의 내용 지식과 활동만을 나열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구성과 세부 내용은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호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각 나라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핵심 개념’, ‘핵심 과정’, ‘범위와 내용’, ‘교육과정 기회’ 부분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제시된다. 음악교과의 내용 지식, 활동, 과정 등을 통합한 다차원적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한 후 이것의 전체적 범위의 개요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 기회를 정리해서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개념’ 부분은 음악학습을 뒷받침하는 중요 개념들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5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5개의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표 5> 영국 key stage 3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핵심 개념	실 제 의 통합	· 연주, 작곡, 감상의 통합을 통한 지식, 기술, 이해의 발달 · 음악가로서 타인과의 참여 및 협력 작업, 다양한 음악적 역할에 적응, 타인들이 음악 학습에 가져다주는 가치와 이익을 존중하기
	문 화 적 이해	· 음악의 전통에 대한 이해, 국가적·세계적 문화와 개인적 정체성 안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에서 사고, 경험, 정서가 전달되는 방법 탐색
	비 평 적 이해	· 음악을 접하고 분석하기, 관점을 발달시키고 견해를 정당화하기 · 판단을 위해서 광범위한 음악적 맥락과 양식에 대한 경험을 이용하기
	창의성	·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또 새로운 맥락에서 기존의 음악적 지식, 기술, 이해를 사용 · 음악이 다른 예술 형식, 다른 교과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탐색
	의사소통	· 음악을 통해 사고, 감정, 아이디어, 정서가 표현될 수 있는 방법 탐색

출처: QCA, 2007, pp. 180-181

‘핵심 과정’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는 ‘필수적 기술과 과정’을 설명한다. ‘필수적 기술과 과정’은 음악성과 음악적 이해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연관성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위 구성 요소로는 ‘연주, 작곡, 감상’과 ‘검토와 평가’가 있다. ‘연주, 작곡, 감상’은 보통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음악적 개념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적 내용에 대한 이해, 음악적 활동, 인지적 과정 등을 모두 통합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검토와 평가’ 부분은 평가와 피드백, 음악적 소통의 과정 등을 설명한다. 다음은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표 6> 영국 key stage 3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과정’

핵심 과정	연주 작곡 감상	· 솔로 또는 그룹(제창 또는 성부 나뉘 부르기 포함)으로 성악적 테크닉(음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랩, 비트박스, 합창, 스캇, 찬트 등의 스타일로 목소리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과 음악적 표현을 발전시키면서 노래하기 · 악기 특정적 테크닉과 음악적 표현을 조절하면서 연주하기 · 다른 파트를 의식하고, 그룹의 다양한 구성원들, 청중, 장소 등의 역할과 공헌 등을 의식하면서 연습, 리허설 연주하기 · 음악적 구조(대중 가요 구조, 2부와 3부 형식, 변주곡, 론도, 라가, 12마디 블루스 등을 포함), 양식, 장르와 전통 안에서 자원을 선택 및 연계시킴으로써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조, 발전, 확장시키기
----------	----------------	--

검토 와 평가	· 연주 시 즉흥연주하거나 음악적 아이디어를 탐색 및 발전시키기 · 변별하면서 감상하고 소리를 내면화하고 생각해내기 · 음악적 요소(음고, 음길이, 셈여림, 빠르기, 음색, 구조, 휴지), 장치(반복, 반복악절, 오스티나토, 메기고 받기, 돌림노래, 동형진행, 전위, 순환적 패턴과 장식), 조성(장조와 단조 조성, 무조성, 전조, 다양한 음계), 구조의 표현적 사용을 확인하기
	· 악곡을 분석, 검토, 평가, 비교하기 · 다양한 음악의 양식, 장르, 전통에서의 관습과 맥락적 영향을 확인하기 · 학생들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음악적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여 음악적 아이디어와 느낌을 소통하기 · 자신의 작품과 타인들의 작품에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출처: QCA, 2007, p. 182

‘범위와 내용’ 부분은 교사들이 ‘핵심 개념’과 ‘핵심 과정’을 가르칠 때 다루어야 하는 전체적 범위에 대한 개요를 서술한다. 다음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표 7> 영국 key stage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내용’

범 위 와 내 용	· 교실 내외 맥락에서의 연주활동 ·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실황 음악과 녹음된 음악 · 고전음악과 대중음악,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적 차원을 반영하는 현재의 유행 음악 · 음악 양식, 장르, 전통의 범위 내에서 보표를 사용하는 기보법과 다른 적절한 기보법 · 음악 창작, 연주, 감상의 방법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 · 소리를 만들고 조작하고 개선하기 위한 음악 테크놀로지의 활용 · 사회 안에서의 음악과 음악가, 음악 산업, 예술적 지적 재산권 등의 역할
---------------------------	---

출처: QCA, 2007, p. 183

‘교육과정 기회’ 부분은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들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그러한 기회들은 학생들의 학습에 필수적이면서 교과와 개념·과정·내용 등의 활용성을 높인다. 다음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표 8> 영국 key stage 3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기회'

교육과정 기회	· 음악적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포함하는 개인의 성악적·기악적 연주 기술의 발전 · 작곡과 연주를 포함하는 실제적 활동에서의 감상 기술 및 청각적 지각력의 발전 · 노래작곡, 편곡, 즉흥 연주 등을 포함하는 창의적 작곡 기술 발전 · 학생들의 음악 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하기 및 실황 음악 연주 감상하기 · 다양한 규모의 음악적 그룹과 수업에서 개인적으로 작업하기 ·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음악적 리더쉽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고유의 흥미와 기술을 형성하기 · 음악과 다른 교과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들과 연계시키기
------------	---

출처: QCA, 2007, p. 184

캐나다 퀘벡 주의 교육과정은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소개하기 이전에 '연계', '교수학습 맥락'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기 위한 안 내를 상세하게 하고 있다. 본격적인 교육과정 내용은 3개의 각 '역량' 부분에 제시되고 있다. 문서 마지막에 제시되는 '프로그램 내용'은 음악교육의 내용 지식으로서 독립된 범주로 제시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계' 부분에서는 음악 교과가 총론에서 제시한 다른 교육과정 구성 요소들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은 그에 대한 예시이다.

<표 9> 캐나다 퀘벡 주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 '연계' 부분 내용 일부

연계 범주	연계 내용
광범위한 학습 영역과의 연계	· 예술적이고 간학문적인 프로젝트, 예술적 제작물 감상, 팀으로 작업하기, 작품연주, 관점의 표현 등의 계획과 제작은 광범위한 학습영역의 교육적 목적을 충족시킴 · 미디어 문해력, 시민성과 공동체 삶, 개인적 직업 계획 등과 같은 것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목표가 됨
범교육과정적 역량과의 연계	· 음악에서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은 모든 범교육과정적 역량을 사용함 · 창작을 위한 자극을 개발하고 개인적 또는 모둠 창작에 참가할 때 창의적 사고를 사용 · 앙상블 연주 상황 하에서 학생들의 음악성을 이끌며, 기악 테크닉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동에 도움을 줌
다른 교과 영역과의 연계	· 작품의 음악적 내용, 구조, 리듬적 선율적 조직 등을 검토하는 것은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 내는 기회를 제공 · 다양한 소리 자원 같은 물리적 자산의 확인과 사용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속성의 지식을 요구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p. 405-406

(※ 볼드체는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요소의 하위 요소들임)

‘교수학습 맥락’에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내용들 즉, 음악실, 학습 환경, 교사, 학생,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역량 1’, ‘역량 2’, ‘역량 3’ 부분에서 본격적 교육과정 내용인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자세히 설명한다. 3가지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 별로 ‘역량의 초점’, ‘역량의 핵심 특징’, ‘주기 말에 기대되는 성취’, ‘평가 척도’ 등을 제시한다.

‘역량의 초점’ 부분에서는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의미, 학습 환경이나 자료 및 활동 같은 다양한 학습을 위한 맥락을 제시한다. 다음은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의미이다.

<표 10> 캐나다 퀘벡 주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각 역량의 ‘역량의 초점’ 부분에 드러난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의미 정리

음악교과 특수 역량	‘역량 1’, ‘역량 2’, ‘역량 3’ 각 부분에서 제시한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의미
1.음악 작품 창작하기	- 창작은 생각, 느낌이나 정서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에 있어 특수한 언어(소리와 변수), 규칙(작곡진행과 음악형식), 도구(목소리와 악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 개성, 경험, 열망, 세계관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악곡의 창작으로 인해 창의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다양한 맥락에 적용 - 학생들은 창의적 동력에 참여하고,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자원을 결집시키며, 창의적 상상력과 발산적이고 수렴적인 사고를 활성화함
2.음악 작품 연주하기	- 연주는 생각, 느낌,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의도와 함께 창작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 - 음악적 표현 및 다양한 테크닉 기술에 대한 이해를 요구 - 학생들은 음악적 언어(소리와 변수), 규칙(작곡 진행과 음악 형식), 음악에 특수한 도구(목소리와 악기)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합 - 다른 사람의 창의적 세계로의 모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적 표현과 묘사의 대리적인 방법을 탐구하고 실험하게끔 함 - 연주는 학생들의 기술적, 언어적, 문화적 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다양한 음악작품을 발견하게끔 함
3.음악 작품 감상하기	- 감상은 작품의 다양한 의미탐구와 비평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으로부터 작품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 - 다양한 음악적 창작물과의 접촉은 학생들로 하여금 악곡의 표현적, 상징적, 기술적, 심미적 질에 대한 그들의 예술적 인식과 감수성을 개발하게끔 하고 깊은 이해력을 키우게 됨 - 자아-지식을 개발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풍부하게 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획득 - 음악작품을 듣고 다른 문화적 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키우게하며, 감각적이고 안목 있는 감상자가 되기 위해 학생들의 선택을 안내하게 될 개인적 감상 척도를 개발시킴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p. 408, 410, 412에서 재구성

‘역량의 핵심 특징’ 부분에서는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의 흐름을 제시한다. 다음은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핵심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표 11> 캐나다 퀘벡 주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 각 음악교과 특수역량의 ‘핵심 특징’

음악교과 특수 역량	각 ‘역량의 핵심 특징’ 내용
1.음악 작품 창작하기	•음악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사용 •소리 자원, 음악적 언어의 요소 및 테크닉의 요소 사용 •자신의 음악적 창작물의 조직 •자신의 창의적인 음악적 경험의 공유
2.음악 작품 연주하기	•작품의 음악적 내용을 잘 알기 •성악이나 기악적 테크닉의 요소의 적용 •악곡의 표현적 속성을 잘 알기 •모듬 앙상블 연주 관습의 존중-개인적 연주 경험의 공유
3.음악 작품 감상하기	•작품의 분석 •작업의 의미 해석 •비판적이고 심미적인 판단하기 •자신의 감상 경험의 공유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p. 409, 411, 413에서 재구성

문서 마지막에 제시되는 ‘프로그램 내용’ 부분에서는 ‘전략, 테크닉, 음악적 개념(셈여림, 길이, 음높이, 음색, 소리의 질, 형식, 빠르기, 리듬적 조직, 선율적 조직, 화성적 조직, 그래픽 표현), 음악 감상 레파토리, 문화적 관련사항’ 등이 포함된 내용 체계를 제시한다.

4. 평가

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평가는 문서 마지막에 제시된 ‘성취 목표’ 부분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서는 4 - 8 수준(level)별로 각 수준이 도달해야하는 목표를 서술하고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하나의 예시이다.

<표 12> 영국 key stage 3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 목표' 일부

성 취 목 표	수준4
	학생들은 소리들 간의 관계성과 음악이 어떻게 다양한 의도를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탐색한다. 귀로 듣고 간단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성부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지 또한 전체적 효과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지각하면서 자신의 성부를 유지한다. 학생들은 그룹 연주의 일부로서 선율적 리듬적 프레이즈를 즉흥연주하고, 음악적 구조 안에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킴으로써 작곡을 한다. 학생들은 적절한 음악 어휘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설명하고 비교하고 평가한다. 학생들은 의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작품의 개선점을 제시한다.

출처: QCA, 2007, p. 186

캐나다 퀘벡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평가는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하위 구성요소인 '주기 말에 기대되는 결과'와 '평가 준거'에서 제시된다. 역량을 중시하는 구성이기에 평가도 음악교과 특수 역량별로 제시된다. '주기 말에 기대되는 결과' 부분에서는 주기 말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제시한 후 간략한 '평가 준거'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역량 3 - 음악 작품 감상하기' 부분에서의 이에 대한 예시이다.

<표 13> 캐나다 퀘벡 주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 '역량 3 - 음악 작품 감상하기'의 '주기 말에 기대되는 결과'와 '평가 준거' 일부

역량 3 - 음악 작품 감상하기	
주기 말에 기대되는 결과	평가 준거
• 학생들은 개인의 심미적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악곡의 구성요소를 확인 • 이러한 요소들, 역사적 측면, 작품에 대한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연결 • 학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한 그들의 감상을 소통 • 학생들은 그들의 감상 경험을 설명하고 논평하며, 그들이 사용한 전략과 방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학습한 것을 확인 • 다른 학생들의 논평과 윤리적, 심미적, 비평적 의견의 다양성 등에 흥미를 보임	• 작품의 구성요소, 자신이 느낀 것과 감상한 것 간의 일관적인 관계성 • 확인된 역사적 측면의 적절성 • 유지된 감상 척도의 고려 • 자신의 감상을 소통하기 위해 교과 특수적인 어휘의 효과적 사용 • 자신의 감상을 소통하기 위해 구어와 문어의 적절한 사용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413에서 재구성

IV. 영국과 캐나다 퀘백 주 음악과 교육과정 특징

이번 장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교육과정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탐색해보겠다.

1. 공통점

두 사례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첫째, 전체적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이 총론과 연계성을 갖고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총론과의 연계성을 위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음악과의 ‘교육과정 목적’이 음악 교육에 국한된 목적이 아니라 총론에서 제시된 일반적 목적인 “성공적 학습자, 자신감 있는 개인, 책임감 있는 시민”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는 음악과 교육과정이 총론과의 연계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측면이다. 음악교과에서 총론에서 강조하는 ‘기술’을 하나의 범주로 독립시켜 명시하지 않더라도 총론 차원의 일반적 목적과 동일한 목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총론의 역량 중심적 접근 맥락을 음악 교과에서도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또 다른 하나는 총론에서 강조하는 ‘지식, 기술, 이해’의 발달을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부분의 ‘실제의 통합’ 부분에서도 “연주, 작곡, 감상의 통합을 통한 지식, 기술, 이해의 발달” 이라고 강조하여 총론의 전체적 방향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총론에서 강조하는 ‘기술’, 특히 ‘개인, 학습, 사회 기술(PLTS)’을 음악 교과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러한 노력은 음악과 교육과정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시이다.

<표 14> 영국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인, 학습, 사회 기술(PLTS)' 구현의 예

음악과 교육과정 중 일부			총론의 '개인, 학습, 사회 기술(PLTS)' 일부	
핵심 개념	실제 의 통합	타인과의 참여 및 협력 작업	협력자	공동의 목적을 위해 타인 과 협력하기
		타인들이 음악 학습에 가져다주는 가치와 이익을 존중하기		타인과 타인의 공헌을 신 뢰하기
	창의 성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또 새로운 맥락에서 기존의 음악적 지식, 기 술, 이해를 사용	창조적 사고자	상황변화에 아이디어 적용 하기
핵심 과정	연주 작곡 감상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조, 발전, 확 장시키기	창조적 사고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가능 성 탐색하기
		연주 시 즉흥연주하거나 음악적 아 이디어를 탐색 및 발전시키기		
	검토 와 평가	음악적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여 음 악적 아이디어와 느낌을 소통하기	반성적 학습자	다양한 사람들과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에 대해 소 통하기
교육 과정 기회	학생들의 음악 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음악 가들과 함께 작업하기		협력자	공동의 목적을 위해 타인 과 협력하기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음악적 리더 쉽 기술을 발전시키기			리더쉽을 포함하여 다양한 역할과 상황에 맞게 행동 하기

따라서, 영국은 이러한 총론과의 연계성을 통해 음악 교과가 총론의 일반적 '기술' 즉, 역량의 구현에 기여함으로써 음악 교과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처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개인, 학습, 사회 기술(PLTS)'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현함으로써 총론 차원의 '기술' 개발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핵심 개념' 부분에서 제시하는 '문화적 이해', '창의성', '의사소통' 등의 하위 개념들은 다른 나라의 총론에서 강조하는 역량의 하위 개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개념적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 의미의 역량을 지향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 교과가 일반적 역량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사실 '문화적 이해', '창의성', '의사소통' 등은 비록 역량 중심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음악 교과의 개념 영역에 포함시켜

명시함으로써 이제는 그러한 일반적 의미의 역량 요소들이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학습 내용이라는 것을 천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에는 음악교과 특수 역량과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 요소간의 연계성을 통해 총론 차원의 역량과 음악교과 특수 역량 개발 모두에 기여하는 시너지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성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계' 부분, 그리고 3개의 각 '역량' 부분의 '역량의 초점'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연계' 부분에서의 연계성은 앞의 <표 9>에 서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범교육과정적 역량'은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개발을 위해 사용됨(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405)을 명시하여 음악교과가 일반적 역량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범교육과정적 역량'이 음악교과를 통해서 개발되면서도 역으로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역량 1', '역량 2', '역량 3' 각 부분의 '역량의 초점'에서 제시한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총론의 '범교육과정적 역량'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음악교과 특수 역량이 총론의 역량 개발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음악교과 특수 역량과 총론의 '범교육과정적 역량'과의 연관성을 정리한 표이다.

<표 15> 캐나다 퀘벡 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교과 특수 역량과 총론의 '범교육과정적 역량'과의 연관성 비교

음악교과 특수 역량과 하위 의미 일부		'범교육과정적 역량'과 하위 역량 일부	
1. 음악 작품 창작하기	창의성을 개발/ 창의적 상상력과 발산적이고 수렴적인 사고를 활성화 함	지적역량	창의력의 활용
	음악적 언어, 규칙, 도구의 사용	지적역량	정보의 사용
2. 음악 작품 연주하기	생각, 느낌,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	의사소통 관련 역량	적절한 의사소통
	음악적 언어, 규칙, 음악에 특수한 도구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합	방법적 역량	효과적 작업 방법 선택
3. 음악 작품 감상하기	자아-지식을 개발	개인적·사회적 역량	자신의 잠재력 성취

이렇게 다양한 총론과의 연계 방법을 통해 ‘범교육과정적 역량’과 음악 교과 특수 역량 모두를 총체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둘째, 평가에 있어서 질적 경험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고, 수준별 또는 주기별 성취 수준을 제시한다. 영국의 경우 <표 12>에 제시된 수준별 ‘성취 목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이 어떻게 다양한 의도를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탐색한다... 다양한 성부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지 또한 전체적 효과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지각하면서 자신의 성부를 유지한다... 학생들은 적절한 음악 어휘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설명하고 비교하고 평가한다... 학생들은 의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작품의 개선점을 제시한다.” 등의 내용들이 언급된다. 이것은 학생들이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인지적, 심동적, 가치적, 심미적 판단과 경험의 과정을 진술하는 것으로 단순한 지식과 수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는 매우 다르다. 결국 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양적 지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학생들의 질적 경험에 평가의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 주기별로 해당 역량에 근거한 성취수준과 평가 척도를 제시한다. <표 13>에 제시된 것처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에 대한 이해나 활동에 국한된 평가가 아니라 인지적·정의적·심동적·사회적·심미적인 총체적 의미를 지니는 음악교과 특수 역량에 대한 성취 및 평가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질적 경험의 과정을 평가한다.

2. 차이점

두 사례가 총론과의 연계성을 통한 역량 개발을 지향하고 평가에서도 질적 경험에 대한 평가라는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첫째, 문서체제에 있어서 영국은 평가를 독립시켜서 ‘목표 - 내용 - 평가’에 이르는 순서를 취하는데, 캐나다 퀘벡 주는 평가를 독립시키지 않고 내용과 묶어서 ‘목표 - 내용 및 평가’에 이르는 구성을 취한다. 또한 영국

은 역량을 하나의 범주로 독립시키지 않는 반면 캐나다 퀘백 주는 역량을 하나의 범주로 독립시켜 강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연계’, ‘교수학습 맥락’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원칙을 안내하는 범주를 별도로 제시한다. 캐나다 퀘백 주의 교육과정은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는 총론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음악과 교육과정도 음악교육의 내용 지식에 앞서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과정이 역량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서 체제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목표에 있어서 영국은 총론의 일반적 목표를 준용하지만 캐나다 퀘백 주는 총론의 목표 중 하나인 “역량강화”를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음악교과의 본질에 의한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개발을 제시한다. 총론의 개정 방향과 맥락을 함께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영국은 총론을 그대로 따르는 직접적 스타일을, 캐나다 퀘백 주는 음악교과를 더 존중해주는 간접적 스타일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평가 제시 방법에 있어서 영국은 평가척도를 제시하지 않고 성취 목표만 제시하는 반면, 캐나다 퀘백 주는 평가척도를 제시하면서 각 역량 별로 역량에 근거한 성취수준을 제시한다. 현장에서 평가를 실시할 때는 성취 목표만 제시한 영국 교육과정정보는 성취수준과 평가척도를 함께 제시한 캐나다 퀘백 주 교육과정이 더 유용하리라 기대된다.

넷째, 교육과정 내용에 있어서는 두 사례가 아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영국의 경우에는 우선, ‘핵심 개념’의 범주가 음악적 내용 지식 이외의 것으로 폭넓게 확대되었다. 보통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개념이라고 하면 음악적 요소·양식·레파토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부분을 살펴보면 “연주·작곡·감상 등의 통합을 통한 음악적 지식·기술·이해의 발달”을 강조한 ‘실제의 통합’ 이외에 음악을 통한 ‘문화적 이해’, ‘비평적 이해’, ‘창의성’, ‘의사소통’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들은 영국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의 중요성’ 부분에서 이미지에 음악내용들³⁾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음악교과가

3) 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의 중요성’ 부분에서는 음악은 의사소통 형식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며,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성과 감성을 연결시키

지향해야하는 목표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들이다. 즉, 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은 기존의 음악적 개념만을 범주에 포함하는 협의의 개념을 뛰어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영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육의 내용이 음악적 내용 지식과 활동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것을 학습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영국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과정’, ‘범위와 내용’, ‘교육과정 기회’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음악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음악적 활동을 포함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경험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학습하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과정’ 중 “변별하면서 감상하고 소리를 내면 화하고 생각해내기”, ‘범위와 내용’ 중 “음악 창작, 연주, 감상의 방법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 ‘교육과정 기회’ 중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음악적 리더쉽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고유의 흥미와 기술을 형성하기, 음악과 다른 교과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들과 연계시키기” 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특히, ‘핵심 과정’ 부분에서는 음악적 활동과 이해가 통합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지적 과정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기술방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에는 우선, 교육과정의 내용으로서 음악교과본질에 의한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성취를 강조한다.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은 음악교과 특유의 본질에 의존하면서도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총체적이고 심층적 의미를 지닌다.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은 그 명칭만 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같은 음악 ‘활동’ 개념과 유사하여 음악교과 특수 역량이 음악의 본질적 활동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 <표 10>에 제시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음악적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한 인지적·정의적·심동적·사회적·심미적 경

고, 개인의 표현·성찰·정서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비평적 기술을 개발하며, 자기-수양·창의성·심미적 감성을 향상시킨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QCA, 2007, p. 179).

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활동 자체 또는 활동을 통한 음악적 개념의 이해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져야 할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역량이라는 것에 차별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역량 2 - 음악 작품 연주하기’의 “음악적 표현 및 다양한 테크닉 기술에 대한 이해를 요구” 부분은 인지적, 심동적 경험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연주는 학생들의 기술적, 언어적, 문화적 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다양한 음악작품을 발견하게끔 함” 부분은 심동적, 사회적, 인지적 경험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또한, ‘역량 3 - 음악 작품 감상하기’의 “예술적 인식과 감수성을 개발하게끔 하고 깊은 이해력을 키우게 됨”은 인지적, 심미적 경험을 의미하며, “자아-지식을 개발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풍부하게 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획득”은 사회적, 정의적 경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경험들은 단순한 음악적 ‘활동’으로 규정하기엔 훨씬 심층적이다. 바로 이것이 인지적·정의적·심동적·사회적 차원의 총체적 의미의 역량인 것이다. 즉, 연주, 창작, 감상 자체는 음악의 본질적 활동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은 역량의 총체적 성격을 담고 있는 과정이 된다. 사실 우리가 연주를 하고 창작을 할 때 단순히 곡을 연주하고 음악을 만드는 것 외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의미화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층 더욱 성장하게 된다. 교육과정 문서에 이러한 총체적 경험의 과정을 담는다는 것은 음악교육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음악교과 특수 역량은 음악교과 본질에 의한 것에서 출발을 하고, 역량의 총체적 성격을 음악교과가 활용하여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규명하였다. 역량의 총체적 성격이 음악교과의 전인 교육적 가치와 만나게 되면서 결국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세부 내용들이 음악의 전인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음악교과의 정체성을 돈독히 하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심층적 연구가 뒷받침된 각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의미 자체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켄백 주 음악과 교육과정 ‘도입’ 부분의 음악의 전인 교육적 가치에 대해 설명한 부분⁴⁾과도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퀘벡 주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개발한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역량 1’에서 “창작은 생각, 느낌, 정서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에 있어 특수한 음악적 언어(소리와 변수), 규칙(작곡진행과 음악형식), 도구(목소리와 악기) 등을 사용” 한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또한, ‘역량 2’에서 “학생들은 음악적 언어(소리와 변수), 규칙(작곡 진행과 음악 형식), 음악에 특수한 도구(목소리와 악기)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합” 한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여기서 “음악적 언어, 규칙, 도구” 등은 음악교과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구현을 위해 음악적 지식의 활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3. 정리

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역량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역량 범주를 독립시켜 제시하지는 않지만, 총론의 목적에 지향점을 두면서도 음악교과의 본질을 유지하며, 총론과 연계하여 총론에서 강조하는 역량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다각도로 제시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현 방법은 총론의 가치와 음악교육의 가치를 모두 중시하면서 역량에 대한 음악교과의 해석을 담은 것으로 명시적으로 역량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배경에 있어서 역량 중심적 경

- 4) “음악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한다. 심동적 수준에서 음악은 시청각적 차원 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기능적 민첩함을 요구한다. 인지적 수준에서 음악은 기억력, 창의력, 관찰 기능, 분석적 능력과 종합 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음악 작품의 창작에 관해서는 사고, 개념, 원칙, 규칙 등이 개인적 방법으로 조직된다. 정의적 수준에서 음악은 학생들에게 창작 또는 음악 작품의 연주를 하는 데 있어 진지한 전념을 요구한다. 학생들이 그들의 감정을 탐구 및 표현하고, 가치, 신념, 개성을 인식하며, 잠재력을 발견함으로써 음악은 그들의 감수성을 발달시킨다. 사회적 수준에서 그룹 또는 개인의 작업은 책임감을 키운다. 창작, 연주, 이해, 감상, 음악에 대해 민감하기 등은 학생들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특수한 지성의 형식을 나타낸다. 학생들에게 정의적, 인지적, 심동적, 사회적,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와 세계관을 표현하고 다른 학생들과 작곡가들의 사고에 대해 민감해지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403)

향을 보여주는 음악과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캐나다 퀘벡 주 음악과 교육과정은 역량 개발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론의 일반적 역량의 하위 요소들을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직접 드러내기보다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통해 총론의 역량 구현에 기여하는 동시에 영국의 경우보다 한발 더 나아가 역량 개념을 활용하여 음악교과의 정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퀘벡 주는 음악교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음악교과 특수 역량 중심으로 설계되는 동시에 총론 차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교육과정 구성요소와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역량 중심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드러난 과정과 내용들이 이미 음악 교과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실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다 자세하게 규명하고 공식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음악교육자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V.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의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음악교과가 음악교과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변화상에 발맞춰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총론의 철학이나 목적을 음악과에서도 적용하여 설계하고, 음악교과의 지식 체계보다 역량을 전면으로 내세워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배경에는 음악교과가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 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상을 길러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음악 교과적으로 해석하여 나름대로의 접근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음악 교과가 일반적 역량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적 이해, 창의성, 비평적 판단, 의사소통, 문제해결력, 문해력, 타인과의 협력, 자아 성취 등 다양한 역량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음악 교과적 입장에서 해석을 담아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의 경우처럼 일반적 역량의 내용을 ‘핵심 개념’, ‘핵심 과정’, ‘교육과정 기회’ 등에 포함시켜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캐나다 퀘벡 주처럼 음악교과 특수 역량이라는 장치를 통하거나 다른 교육과정 구성 요소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음악교과의 본질에 근거한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 3가지 음악교과 특수 역량은 음악의 본질을 존중하면서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단순한 기술이나 활동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인지적·정의적·심동적·사회적·심미적 차원의 심층적 역량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교과가 역량의 총체적 성격을 활용하여 음악교과의 전인 교육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음악교과의 정체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내용 지식 체계에 대한 설명보다는 역량의 의미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상의 원리(principles of procedure)’를 비중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절차상의 원리’는 “교육적 과정이나 절차를 지원하는 가치, 즉 교육자가 교수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자 교수법과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중심적 가치”(Mckernan, 2008, p. 87)이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설계 자체는 구성요소별로 제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통합되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역량 중심적 설계는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요소도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드러내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따라서, 캐나다 퀘벡 주는 ‘연계’, ‘교수학습 맥락’, ‘역량 1’, ‘역량 2’, ‘역량 3’ 부분에 걸쳐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개발하는 원리나 과정에 대해 매우 긴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음악적 내용보다는 역량

개발의 원리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다섯째,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음악과 적용에 있어 다양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처럼 역량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역량 범주를 독립시켜 제시하지도 않지만 ‘핵심 개념’이나 ‘핵심 과정’에서 일반적 역량과 연관을 지어서 총론의 일반적 역량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퀘백 주처럼 도입부에서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개발을 명시한 후,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교육과정 구성요소와의 연계성을 통해 총론의 일반적 역량 구현에 기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총론 차원의 일반적 역량 중심으로 음악 교육과정을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고 기존의 음악 교과의 지식 체계를 존중하면서 지식과 역량을 연계시키고 있다.

여섯째, 음악의 목적과 성격 등이 교육과정 내용 부분과 잘 연계되어 교육과정을 실행했을 때 교과 목적 성취에 더욱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문서 초반에 제시된 ‘음악의 중요성’ 부분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핵심 개념’으로 추출하고, 캐나다 퀘백 주의 경우 음악교과 특수 역량 자체가 도입부에 제시된 음악 교과의 본질적 성격과 매우 긴밀하고 심층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교육과정 실행 시 음악 교과의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곱째, 역량 성취를 위한 질적 경험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 단순한 지식 및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생들의 인지적, 심동적, 심미적, 사회적인 질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취 목표’ 또는 ‘성취 수준’을 명시한다.

여덟째, 음악 교과가 교육과정상의 다른 교과나 영역과의 연계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역량을 추구하기 위해 음악이 다른 교과나 다른 교육과정 구성 요소와 연계하는 방법을 교육과정 문서상에 매우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영국과 캐나다 퀘백 주의 경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변화상에 발맞춰가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초점이 교과 자체에서부터 학생의 삶으로 이동함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학생들의 역량 성취를 돕기 위한 설계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된다.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목적과 철학을 음악교과에서도 수용하고 교육과정 내용에 일반적 역량을 반영하거나,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설정하고 이것과 다른 교육과정 구성 요소들 간의 연계를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등의 과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절차상의 원칙을 세운다. 이때 역량 성취에 활용되는 교과 지식의 내용은 대략적 범위만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학생들의 행동적 목표로서 그 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역량의 성취 수준을 제시하여 자칫 무분별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교육과정 실행과정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설계된다는 점이다. 이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음악의 예술적 가치만을 강조하거나 지식·기능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존의 학교 음악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교육적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다. 최근의 학교 음악교육의 정체성의 위기가 외부로부터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음악교육 내부적으로 사회 변화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은 그 출발이 학생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에 신선한 의미를 던져준다. 사회적 변화에 이끌려가기보다는 오히려 변화를 선도하는 음악 교육으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전환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역량 중심적 접근은 음악교육에 의미 있게 다가온다.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일대일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거시적 안목을 갖고 학교 교육의 제 1 목적인 인간 교육 차원에서 음악교육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정책당국과 일반대중에 음악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은 음악교육이 보다 큰 그림 속에서 거시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하

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 시 역량의 음악 교과적 적용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총론 차원의 일반적 역량을 음악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설계이다. 일반적 역량의 음악과 교육과정 적용은 음악교과가 역량의 성취를 위해 활용되지만, 음악교과 특수 역량은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처럼 일반적 역량의 개발에 기여하면서도 역량의 총체적 성격을 활용하여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교과의 정체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음악교과 안에서의 일반적 역량의 구현 작업도 의미가 있고,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설계도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음악교과의 정체성 함양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음악교과 특수 역량의 설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 절차상의 원칙과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량은 역량 자체만으로는 교육적 실행이 불가능하고 내용으로서 교과나 다른 교육과정 구성 요소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교과교육이나 다른 교육과정 구성 요소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역량은 개발될 수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 역량과 그 외의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나열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역량의 개발이 잘 실행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잘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상에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두 사례의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음악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음악교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 작업의 시작인 동시에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 소경희 (2001).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방식 탐색 - 호주의 '뉴 베이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교육학회**, 11(2), 133-159.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소경희 (2011). 영국의 초등교육과정 개혁 논쟁: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및 처방의 적정화 담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1), 87-109.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이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RRC 2009-1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선영 (2011).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원표, 이근호 (2010).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연구보고 RRC 2010-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Mckernan J. (2008). *Curriculum and imagination - process theory, pedagogy and action research*. New York. Routledge.
-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Québec education program* -

- Preschool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education*. Quebec: Author.
-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Québec education program - Secondary school education*. Quebec: Author.
- OECD. (2002).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 Strategy paper*: Author.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Executive summary*: Author.
-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 (2010). *The national curriculum - Primary handbook*. Great Britain: Author.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07). *Music Programme of study for key stage 3 and attainment target*: Author.
- <http://www.inca.org.uk/>
- <http://curriculum.qcda.gov.uk/key-stages-3-and-4/index.aspx>
- http://curriculum.qcda.gov.uk/uploads/QCA-07-3341-p_Music_KS3_tcm8-406.pdf,
- http://www.mels.gouv.qc.ca/DGFJ/dp/programme_de_formation/primaire/educprg2001h.htm
- http://www.mels.gouv.qc.ca/DGFJ/dp/programme_de_formation/secondaire/qepsecfirstcycle.htm
- http://www.oecd.org/document/17/0,3343,en_2649_39263238_2669073_1_1_1_1,00.html
- <http://www.deseco.admin.ch/>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Competency-Oriented Music Curriculum - the UK and the Province of Quebec, Canada

Song, Joo-Hyu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eatures of the documents of the UK and those of the province of Quebec, Canada by comparing and by analyzing them, and to research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music curriculum. The three featured implications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y designed the competency-oriented music curriculum with a deeper interest in the life and future of the students. Second, the design for the competency-oriented music curriculum has two directions of adapting the general competency from general guideline to music curriculum, and of designing music subject-specific competency. Fin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ole of music curriculum into guiding the principle of the procedure and process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ompetency-oriented music curriculum.

key words : the competency-oriented music curriculum, general guideline, music curriculum, general competency(competence, skills), music subject-specific competency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일: 10월 30일(11월 10일), 게재확정일: 11월 25일